

“마음껏 보고 생각하고 느끼게 하자”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여실하게 키우자

몇 해 전에 지방 중소도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정년 퇴임식에 참석한 바 있다. 이때 나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4학년, 5학년 여자 어린이들 20명 정도가 합창을 하기 위하여 자리 잡고 있었는데 모두 한복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던 점이다. 한복을 입은 것은 아름답게 보였지만 입술은 빨갛게 칠하고, 얼굴에는 분을 바르고, 머리는 대부분 파마를 하고 있었으니 이 어찌 어린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어린이의 실상(實相)은 아니며 허상(虛相)이다. 여실(如實)이 아니라 여허(如虛)이다.

흔히 우리는 어른다운 어린이를 훌륭한 어린이라고 한다. 짐작고, 조용하며, 장난하지 않고, 어른의 말에 고분고분 순종을 하면 “저 애는 속에 영감이 들어 있었다”라고 칭찬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이의 모습은 어린이의 실상은 아니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의 실상이 있고, 어른에게는 어른의 실상이 있다.

이러한 점은 인간의 신체적 구조면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신장에는 머리의 길이가 전 신장의 4분의 1이지만 어른은 8분의 1이며, 신장어의 눈의 위치는 앞의 한 가운데에 있지만 어른의 눈은 위로부터 4분의 1이 되는 위치에 있다. 어린이를 확대하여도 어른이 안되고 어른을 축소하여도 어린이는 되지 않는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

김중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15>



그림 · 이준석

어린이들은 잠시도 쉬지않고 만지고 부수고 맛보며 지적세계 확대 어른스런 어린이 ‘허상’

의 세계가 있고 어른에게는 어른의 세계가 있다.

물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실(如實)은 어린이, 어른과 같은 현상계(現象界)로서의 여실(如實)은 아니라고 생각 할 수도 있으나 현상계의 근본지(根本智)로서의 여실임을 감안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어린이를 어린이의 실상답게 키우고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몇 가지의 예를 들어 보자. 그 하나는 어린이의 자발활동에 관한 것이다. 나는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노인들이 손 자녀를 데리고 노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평화스럽고 행복하게 보였다. 그런데 나 혼자 손자를 보는 경험을 하고는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손자와 같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줄은 미처 몰랐다. 마치 중노동과도 같았다. 어린이들은 잠시도 쉬지 않

고 무엇을 만져 보고 두드려 보고 부수고 입에 넣어 맛을 보고 훑아 보고 한다. 그래서 잠시도 손자로부터 눈을 뗄 수 없었다. 흔히는 어린이들에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책 좀 읽게”와 같은 표현으로 야단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어린이가 조용할 때는 잠들었을 때와 몸이 아플 때뿐이다.

몇 해전 3월에 어떤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박을 내다 본 일이 있었다. 새로 입학한 1학년 어린이들이 활발하게 뛰어 놀고 있었는데 한 여자 어린이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 어린이는 흰 옷을 입고 흰 양말을 신고 있었으며 다른 어린이와 놀지 못한 채 노는 모습을 볼끄러미 바라 볼 뿐이었다. 아마도 옷을 더럽힐까 하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어린이가 자라서 과연 이 사회를 함차게 해쳐 나갈 수 있을지 극히 의심스럽다.

나 는 어린이의 자발활동적 실상에 임각하여 어린이 불교교육에 관한 제언을 하고 싶다. 그것은 어린이의 자발활동에 기초를 둔 어린이를 위한 포교의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요즘 부모들 인위적·기교적으로 아동교육 종교적 질문은 발심... “불심 심는 기회로”

다. 많은 사찰에서는 부모가 어린이를 데리고 사찰에 오는 것을 싫어한다. 그것은 어린이들의 자발활동으로 인하여 사찰의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불교적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면 도리어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사찰에 가자고 조를 수 있도록 적극 방편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를 마련한다든지, 동화를 들려 준다든지, 그림연극을 보여 준다든지 하는 등의 방편의 구상이요망된다.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의 근기에 따라 설법을 달리 하셨다. 그래서 팔만사천 법문이라고 하는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하여 어린이 포교를 위한 방편이

어린이의 심리발달에 알맞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어린이의 질문활동에 관한 것이다. 만 4세경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어린이의 질문활동이 대단히 활발하다. 부모가 귀찮을 정도로 질문공세를 퍼붓는다. 어린이의 실상을 모르는 부모는 질문을 봉쇄하고 답변을 회피한다. 그러나 어린이의 질문은 지적 세계를 확대하는 확실한 내적 욕구의 표현인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질문이 많은 어린이일수록 지능이 높은 어린이이다. 왜냐하면 질문은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지적 탐구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질문들 중에는 종교적 내용도 상당히 많으므로 불자인 부모는 이 기회를 포착하여 자녀에게 불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 설혹 종교적 문제에 관한 질문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모가 이러한 질문을 일으켜도 유도를 해야 할 것이다. 종교는 인생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다. 석가모니(釋迦牟尼)의 발심은 곧 질문이었다. 어린이의 질문 특히 종교적 질문을 어린이의 발심으로 보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어른들의 마음가짐이 요망된다.

어린이들은 또한 상모적 지각(相對的知覺)을 가지고 있다. 상모적 지각이란 일체의 만물은 자기와 마찬가지로 말하고, 보고, 생각하고, 느낀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나무가 말하고, 햇님이 웃고, 달님이 내려다 본다고 지각한다. 이러한 시기에는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의 가르침을 어린이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어린이는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안 계신 때가 없다는 것을 쉽게 받아 들일 수가 있다.

금강경 오가해(金剛經 五家解) 야부송(冶父頌)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山是山 水是水)”라는 구절이 있다. 이 가르침을 소박하게 그대로 받아 들이면 “어린이는 어린이요, 어른은 어른이다”라고 풀

이 할 수 있다.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키우면서 지도하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여실(如實)이다. 오늘날의 부모는 어린이를 너무나 인위적, 기교적, 허상적(虛相的)으로 키우고 있다. 속되게 표현하면 어른들의 잘못된 손때를 너무 많이 묻히고 있다.

어른들의 생각이 얼마나 뻔뻔해지고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린이들은 어른이라고 하는 공해에 둘러 싸여 자라고 있으니 어찌 바르게 자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어린이를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키우는 지혜를 습득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자네, 참으로 출세했네...” “그 사람은 이제 출세 가도에 들어섰어...” “사람은 출세하고 불 일이야...” “출세해서 남 주냐?”

일상에서 쓰이는 ‘출세’는 세상에서 성공하여 지위가 높아졌음을 말한다. 그런가 하면 숨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 세상에 알려짐도 출세라고 한다. 이 경우의 출세는 세속의 명예와 이익에 직결되어 있어서 세인(世人)들이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본디 출세란 불교에서 나온 단어다. 불교에서 말하는 출세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남을 말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거나 미래에 미륵 부처님이 나올 때를 출세라고 한다.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보살이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을 교화시키고 많은 도움을 줄 때도 “보살이 이 세

출세

부처님보살 이 세상에 나타남 입신하여 우리들의 대상이 됨

상에 출세했다”고 한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세하신 참뜻을 출세본회(出世本懷)라고 하는데 출세본회란 일면 불교인으로서의 완전한 경지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단어로는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동쪽인 중국으로 와서 선불교(禪佛敎)를 전한 의미를 일컫는 서래본의(西來本意)가 있다. 부처님 출세본회나 달마 서래본의나 모두 불교의 진실한 뜻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생을 꾸며가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출세는 대부분 입신을 통한 부귀영화다. 세속출세를 꿈꾸는 바쁜 생활 중에서 잠시 머리를 돌려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출세를 종종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미 가정을 이뤄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가정과 사회를 버리고 출세한다는 것은 출세본회나 서래본의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정에 충실하면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출세의 경지를 추구하고 체험할 수 있다. 세속적인 출세와 불교적인 의미의 출세가 동시에 이뤄지면 그때 비로소 행복은 완성될 것이다.

참고 안길표출 '이관사판 아단법석'

감·로·심·장·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안면기형·안과(백내장, 녹내장)
후원 문의: ☎ (0591)747-0106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큰스님 법어집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문(門)”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셨던 일타큰스님. 일타큰스님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가 출간되었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큰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I.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 II.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하여 / III. 배움에 살자 / IV. 맑은 삶을 여는 계을 / V.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 VI. 화두 드는 법 / VII. 마흔하버리말

※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권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고된 삶의 김로수 같은 일타큰스님의 책모음

·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생활에서 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 모음집 B6 / 3,500원

· 祈禱(기도) 일타큰스님 도반·신배·제지·신도들의 기도서취 영험담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큰스님 주변의 운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큰스님의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바구의 《지경문》을 읽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5,000원

·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5,000원

· 범망경보살계~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큰스님의 무언변 법어를 담은 책 신국판 / 각권 6,000원

·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샘솟는 일타큰스님의 육상법문 테이프 육상법문 테이프 / 5개 1세트 / 10,000원